

佛教紙花莊嚴會員展

손끝에서 피어나는 불교지화장엄의 세계



2022년 9월 26일 ~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나무갤러리)

주최 :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주관 :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보존회

후원 : 서울특별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佛敎紙花莊嚴會員展

손끝에서 피어나는 불교지화장업의 세계

차 례



7	치사
8	격려사
9	축사
10	인사말
13	승화장 (僧花匠) 불교지화장업 회원전
14	1. 상단지화장업
18	2. 중단지화장업
19	3. 화단지화장업
21	지화장 (紙花匠) 불교지화장업 회원전
22	1. 상단지화장업
27	2. 중단지화장업
30	3. 하단지화장업
33	4. 현대지화장업
38	단체약력
39	교육



佛教紙花莊嚴會員展

손끝에서 피어나는 불교지화장엄의 세계

일시

2022. 9. 26. ~ 29일.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나무갤러리

주최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주관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보존회

후원

서울특별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치사

원행

풍요와 여유가 가득한 동작서수의 계절입니다. 풍성하게 이뤄낸 수확의 기쁨은 많은 시민들과 나눔으로써 그 크기가 배가 됩니다. 전통지화의 따뜻한 향기 나눔은 고단한 대중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가피일 것입니다.

불교에서 지화는 육법공양 중 하나인 화(花) 공양으로 진리를 향한 마음과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입니다. 불단을 장엄하는 꽃 공양구로써, 제작 과정 자체가 신앙심의 표현이며 불국토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화는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온 정성과 마음을 담아 불단을 장엄하기에 마음을 피워내는 꽃, 지심(紙心)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의 지화는 전통의례의 한 형태인 수록재, 영산재를 비롯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의 각종 행사에 장엄되는 중요한 전통문화입니다. 예술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민족 문화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담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이며 후손들에게 보존계승, 선양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화의 명맥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전통지화에 관한 전수, 가치 정립을 위해 부단한 연구 활동을 해온 정명스님과 전시를 함께하는 한국전통지화보존회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성과 노력이 담긴 지화를 함께하며 대중들은 지화에 담긴 의미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시에 소개되는 다양한 전통지화를 통해 사람 사람의 마음 속에 진리의 꽃을 피울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합니다.

불기2566(2022)년 9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격려사

김태연



2022년도 불교지화장엄전승회의 전시회를 열면서.....,

몇 년 만인가~!!!

사람이 눈에도 띄지 않는 병원균을 피해서 살아오는 자태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 모두를 위해 함께 참고, 서로 협조하며, 조심조심
살아오기를 잘했나 싶다.

이렇게 오랜만에 속 시원히 큼직한 종이를 펼쳐 놓고는 가위질 하고 싶은대로 맘껏
오려보는 정겨운 가위질 소리 들으며, 밤 새워 꽃 접고, 꽃 피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함께 꽃으로 피워 나누어 보았다.

늦은 9월의 가을날은 약속했듯이 여물어 가고 있다.

사라질 듯 안타까운 지화의 모습들이 이렇게 환~히 피워지는 전시장에 오면 절로
춤을 추고 있는 내면의 환희로움에 얼굴이 상기되기도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조바심에 초조해 하지 않아도 될까?

보존과 전승에 온 신경 곤두세우며 잦은 발 딛다며, 뛰어다니지 않아도 될까?

그렇다~!!!

믿음직한 불교지화 명인 정명스님께 모두 맡기자~!!!

그래, 힘겹게 지내시지만, 백련화 피고 피면, 연꽃축제에 샘솟는 기(氣)를 받아, 이
가을처럼 또 지화를 지천으로 피우시리라. 그대에게 부처님이 주신 사명인 걸 어찌
하랴~!!!

“생화(生花)는 우주 자연의 공력이요, 지화(紙花)는 인간의 정성인 것이다.

인간의 마음과 공이 저 우주 자연의 공력에 이를 만큼 지극하게 사무쳐, 무생물인
종이를 접어서 영원히 지지 않는 생명과 향기로 피워내는 것이 지화(紙花)일 겹니다.

그러니 우주의 심장에 인간의 정성이 꽃 피도록 염원을 다하여 만들어야 하지요.”

도환스님은 종이꽃을 이렇게 일렀다. 최명희의 『혼불』 속에서.....,

꽃을 접으며, 꽃을 피우며, 지화 글을 쓰면서도, 주문처럼 머릿속으로도 외운다, 이
문장들을 ‘우주의 심장에 인간의 정성이 꽃 피도록 염원을 다하여....’

40여년 지화를 찾아 다니면서.....,

2022년 9월 저녁노을이 고운날

시현(始現) 김태연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축사

김용환



중국을 경유하여 이 땅에 전해진 불교와 그 문화는 한국문화의 중심으로 찬란한 꽃
을 피었다. 그러나 유교를 국시(國是)로 하는 조선조의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이
라는 정치적 외압에 의해 불교의 사회적·종교적 기능은 축소되고 왜곡되었다. 그러
한 악조건 아래에서 조선불교가 수백 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지탱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과 승가(僧伽)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오늘날 남아 있는 조선시대 사찰 건물과 그 내부의 불상, 탱화 등의 미술품은 대
부분 조선시대 승려들의 손에 의해 건설·제작된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승가가
신라·고려 이래의 불교문화의 전통을 계승해 온 수준 높은 문화공동체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조선시대 조정에서 큰 공사를 할 때 그 명단에 승려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경
우가 많은데, 이는 승려가 단지 종교적 의례와 수행만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보
여준다.

왕조의 비호를 받지 못한 조선불교에 있어 민중과의 접점(接點)은 제의식(齋儀式)
이고 제의식은 사원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영산제(靈山齋)나 사십
구제(四十九齋)를 지낼 때 재장(齋場)이나 야단법석(野檀法席)을 장엄하는 것에 지
화(紙花)와 번(?) 등이 있다.

옛날에는 의식이 있기 전에 승려들이 모여 여러 날 공을 들여 종이에 물을 들여 지
화를 만들었다. 그런 오래된 전통이 산업화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
밤을 새워서 하던 제도 이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신라의 진감선사(眞鑑禪師) 혜소(慧昭, 774~850) 스님이 당나라에 유학 가서 범
패(梵唄)를 배우고 귀국하여 지금의 하동 쌍계사에서 제자들에게 그 소리를 전했다
고 하는데 아마도 지화 장엄도 같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 오래된 전통을 이어받아 후세에 길이 전하려고 하시는 정명 스님께 경의를 표
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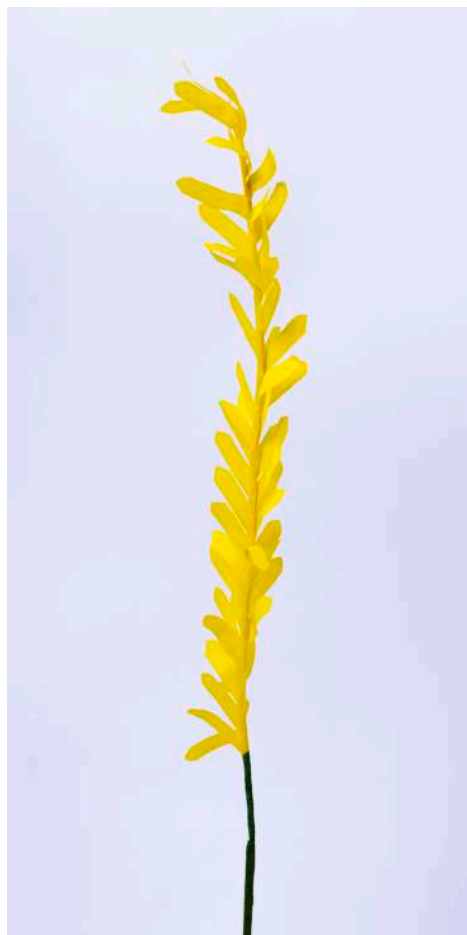
2022년 9월 19일

부산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김 용 환

인사말씀

심운정(정명)



불교의 지화문화는 불가에서 전승하고 있는 전통적인 의례 작업체계입니다. 수행과 구도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의 표출입니다. 불교문화에서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과 아울러 그 조형미와 전통적 색감, 그리고 심미적 내적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지화는 신심으로 피어내는 꽃입니다. 종이를 자르고 천연 염색을 하고 살을 잡아 꽃을 피우기까지 수백 번의 손이 가고 그 손질에 따라 마음이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지화로 피워내는 공(空)의 향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욱 오래 남습니다.

지화 제작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기 성찰, 구도 일념(一念)을 통한 불국토 한 자락 장엄하고자 애쓰는 불사(佛事)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제작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난한 수고로움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전통지화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단풍지절(丹楓之節)의 완연한 가을 날, 불교지화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교지화연구소의 확장 이전을 기념하는 봉행식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전시회는 더욱 뜻이 깊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귀한 전통문화인 불교지화를 보존하고 불교지화장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제자들과 함께하는 전시회라 의미가 큼니다.

행사의 개최와 진행에 도움을 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그리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진행과 준비에 애써 주신 종단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국토장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진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 ‘불교지화장엄회’와 ‘(사)한국전통지화보존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현실 속에서도 전승을 향한 부단한 노력은 의미가 깊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손으로 피워 장엄하는 지화는 만드는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보는 이들에게도 극락세계의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들지 아니하는 마음의 꽃, 지화가 전하는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에 편안함과 청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6년 9월 26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보존회 이사장 심운정(정명)

승화장 정명스님 불교지화장엄 회원전

佛教紙花莊嚴



상단지화장엄

상단지화장엄



상단 수파련
승화장 정명스님
높이 65cm × 가로 30cm, 쪽, 소목, 치자, 자초



부채난등 모란
승화장 정명스님
높이 95cm × 75cm, 소목, 치자, 자초



부채난등 작약
승화장 정명스님
높이 95cm × 75cm, 소목, 치자, 자초

상단지화장엄



부채난등 모란

승화장 정명스님
높이 95cm × 60cm, 쪽, 치자



부채난등 작약

승화장 정명스님
높이 95cm × 60cm, 쪽, 치자

상단지화장엄



살화(우담발화)

승화장 정명스님
높이 90cm × 60cm, 쪽, 치자



홍련

승화장 정명스님
높이 90cm × 60cm, 쪽, 치자

중단지화장엄



팬이난등 다리화
승화장 정명스님
높이 100cm × 45cm, 쪽, 소목, 치자, 자초, 홍희

하단지화장엄



황련
승화장 정명스님
높이 90cm × 60cm, 쪽, 치자



백련
승화장 정명스님
높이 90cm × 60cm, 쪽, 치자

하단지화장엄



불교지화교육
승화장 정명스님

지화장 불교지화장엄 회원전



상단지화장엄



상화 상단고임새

지화장 김지원
높이 75cm × 가로 55cm, 코치닐, 소목



어산상 모란, 수인법상 모란

지화장 안혜영
높이 50cm × 가로 30cm, 나팔꽃



상단 모란

지화장 김지원
높이 45cm × 가로 45cm, 코치닐, 소목

작법무 모란

지화장 원명수
높이 25cm × 가로 40cm, 홍화



부채난등 작약

윤택주, 지화장 고영신
높이 195cm × 가로 180cm, 오디, 치자, 코치닐



부채난등 모란

윤택주, 지화장 고영신
높이195cm × 가로180cm, 오디, 치자, 코치닐



상단 보상과
지화장 이선화
색지



모란
이묘경
높이 190cm × 가로 56cm,
치자, 홍화, 소목



활화 모란
김장순, 한상렬
높이 130cm × 가로 30cm,
코치닐, 소목



산화락 연꽃
박순례
오디, 치자

중단지화장업





팬이난등 국화
지화장 박영숙, 이금주
높이 150cm × 가로 40cm, 소목,치자,쪽, 비트,
포도, 아보가도,감물



팬이난등 다리화
박종임, 신유정
높이 110cm × 가로 70cm, 소목,치자,쪽, 비트,
포도, 코치닐



편모란
양하령
높이 67cm × 가로 45cm, 메리골드



수국
능인스님
높이 96cm × 가로 60cm
꼬치닐 밀랍



곰슬국화
지화장 최숙자
높이 75cm × 가로 40cm, 백지



나발화
지화장 김연진
높이 90cm × 가로 70cm, 로그우드, 치자, 소목



수국
박계영
높이 95cm × 가로 7cm, 오디



경남다리화
지화장 송광선
높이 90cm × 가로 40cm
소목, 치자, 쪽

하단지화장엄



연지단

지화장 김효례, 김문옥
높이 230cm × 가로 90cm, 소목, 코치닐, 홍화, 치자



돈전(금전,은전)

지화장 선일스님
색지, 황지, 백지





연화
김윤실
높이 80cm × 가로 60cm, 코치닐, 소목



연화
권은임, 유경옥
높이 80cm × 가로 63cm, 소목, 치자, 홍화



연화
한규순, 장인섭
높이 100cm × 가로 55cm, 소목, 치자



연화
김선임, 김인숙
높이 92cm × 가로 58cm, 코치닐, 소목, 치자

현대지화장엄





모란
지화장 김현오
높이 78cm × 가로 45cm, 소목, 홍화, 밀랍



연화, 다리화, 홍도화
이윤주
높이 43cm × 가로 36cm, 소목, 쪽, 홍화



모란
서혜숙
높이 53cm × 가로 76cm, 코치닐, 오디, 치자



모란
김복실
높이 85cm × 가로 50cm, 홍화



까리 연화
김황산
높이 78cm × 가로 26cm, 치자, 쪽, 소목, 코치닐, 밀랍



연화
최정숙, 김형자
높이 100cm × 가로 50cm, 소목, 쪽, 치자



국화
이영숙
높이 60cm × 가로 40cm, 소목, 치자, 쪽, 비트, 포도, 감물



연화
김운성, 김옥자
높이 90cm × 가로 60cm, 코치닐, 쪽, 치자



꽃지개

이의병
높이 100cm × 가로 60cm, 쪽, 소목, 치자, 비트



납골당매화

김은숙
높이 25cm × 가로 25cm, 홍화, 소목



국화

박꽃별
높이 75cm × 가로 40cm, 백지



매화

진금선
높이 50cm × 가로 20cm, 코치닐, 홍화, 치자



붓꽃

동호스님
높이 73cm × 가로 35cm, 오디, 밀랍



붓꽃

정규애
높이 73cm × 가로 35cm, 치자, 밀랍



붓꽃

변해경
높이 73cm × 가로 35cm, 오디, 밀랍



붓꽃

남경아
높이 55cm × 35cm, 오디, 밀랍



- 불기2555(2011)년 12월 8일

- 불기2555(2011)년 12월 8일

- 불기2556(2012)년 11월 6일

- 불기2557(2013)년 7월 30일

- 불기2557(2013)년 9월 26일

- 불기2557(2013)년 11월 28일

- 불기2557(2013)년 12월 11일

- 불기2558(2014)년 6월 6일

- 불기2558(2014)년 12월 12일

- 불기2559(2015)년 9월 7일

- 불기2559(2015)년 12월 10일

- 불기2559(2015)년 12월 10일

- 불기2560(2016)년 6월 16일

- 불기2560(2016)년 9월 20일

- 불기2561(2017)년 10월 24일

- 불기2562(2018)년 9월 15일~28일

- 불기2562(2018)년 9월 16일

- 불기2562(2018)년 12월 2일

- 불기2562(2018)년 12월 3일

- 불기2563(2019)년 2월 26일

- 불기2563(2019)년 4월 26일

- 불기2563(2019)년 10월 4일

- 불기2563(2019)년 10월 20일

- 불기2563(2019)년 10월 26일

- 불기2564(2020)년 3월 3일 ~ 14일

- 불기2564(2020)년 10월 24일

- 불기2564(2020)년 6월 7일

- 불기2564(2020)년 10월 26일

- 불기2564(2020)년 5월 4일

- 불기2565(2021)년 5월 3일

- 불기2565(2021)년 7월 8일

- 불기2565(2021)년 10월 9일

- 불기2565(2021)년 11월 18일

- 불기2565(2021)년 12월 11일

- 불기2565(2021)년 12월 25일

- 불기2566(2022년)년 8월 9일

- 불기2566(2022년)년 9월 26일~29일
- 발족 불교지화장엄전승회

발족기념 전시 “종이로 피어나다”

제1회 전통지화전 “깨달음의 꽃”

불교문화단체 등록

제1회 승려연수교육 인증 강습회

제1회 학술세미나

제2회 전통지화전 “염화미소”

제2회 승려연수교육 인증 강습회

제3회 전통지화전 “꽃 자연으로 물들다”

제3회 승려연수교육 인증 강습회

제2회 학술세미나

제4회 전통지화전 “연화장세계”

제4회 승려연수교육 인증 강습회

제5회 전통지화전

정명스님의 지화전 “종이로 피운 공화의 세계”

불교지화 워크숍 및 정명스님 개인전

부여수륙재 지화교육

영화 나랏말싸미 - 조선시대 불교지화장엄 고증재현

서울 중앙박물관 고려전 태조왕건 연좌대 전시

사) 한국전통지화보존회 설립

사) 한국전통지화보존회 전시

제10회 팔봉산 산중전통장터 승시 정명스님지화전시 초대개인전

직할교구 전통등강습회 태극초롱등, 지화교육

봉은문화강좌 3년 교육 지화장 수료식

피카디리 국제미술관 단체전시 - 어잠사권화, 사권화

보원사 수륙재 지화장엄 사) 한국전통지화보존회

한국전쟁 70주년' 해인사 6 25 수륙재

불교문화대전 지화 만들기 유튜브 총무원 문화부

전국비구니회관 법당 서울시장 故박원순 49재영단지화장엄

전국비구니회관 법당 KCC그룹 故정상영 백재 영단 등과, 지화장엄

해인사 우란분재 백중법당 연지단 지화장엄

보원사 수륙재 지화장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시상식 지화

서울 조계사 청년회 만행화 지화체험”

“서울 신라호텔 패백실”지화모란장엄

세종시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법회 지화장엄,

불교지화장엄 회원전

사)한국전통지화보존회

(한국전통지화)수강생 모집

코로나19로 인하여 지화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비대면 수업과, 대면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초급부터 지화장까지 누구나 함께 한국전통지화를 전국 어디에서나 Zoom 영상으로 언제나 볼 수 있게 새롭게 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 육 과 정

•비대면 수업 : 매주 일요일 오후 8시~10시

•대면 수업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4시

- 교 육 내 용

불보살님께 꽃을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자연을 소재로 한 한지, 자연염색

한지재단, 천연염색, 살잡기, 작봉하기, 난등치기

지화장 교육과정	3년수료		
	초급과정 : 1년	중급과정 : 1년	고급과정 : 1년
	불교지화 30가지 이상		

- 교 육 장 소

사) 한국전통지화보존회 사무실 (충정사)

※ 문의 및 전화신청 사무실 접수: 02) 735-5109

佛教紙花莊嚴會員展



손끝에서 피어나는 불교지화장엄의 세계